

성시신문 Magazine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화

최상도 목사 성시화 도시로의 귀환
이영길 소장 거룩한 도시의 환상

기획특집

코로나 이후 교회의 활로 모색

기획연재

6·25전쟁 폐허 속 희망의 빛

문화에 빠지다

맛 기행 예수의 미소(味笑) 국수열전
순전히 내 맛으로 평가한 여름시즌 - ①

문화 김복동 |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

영화 오두막 The Shack

도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 제자가 된다는 것
모래알만한 진실이라도

건강

더위를 이겨내는 여름철보약 생맥산(生脈散)

242

Summer 2021

Pray Continually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



춘천성시화운동본부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춘천성시화운동

QR코드를 핸드폰 사진으로 찍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oly1972.com



춘천성시화운동페이지



성시화운동연구소



춘천성시화운동성시신문



춘천성시화운동월간성시



춘천성시화운동성시방송



춘천성시화운동개인회원



춘천성시화운동교회회원



춘천성시화운동단체회원

창간 1998년 9월 15일 발행인 이사장 이수형 편집위원 최상도, 이연희, 이영규, 김준배, 이관형, 정숙현
편집·발행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주소 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19 문의 (033) 256-1260 팩스 (033) 257-1260
메일 holycc1972@daum.net

*본 매거진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 매거진에 실린 글, 사진, 그림 등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드림애드에 있으며 허락없이 본 매거진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나 복사는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CINTENTS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인물인터뷰 | 성시화운동연구소

05 성시화 도시로의 귀환 | 대담: 조용호박사 / 취재: 최상도 목사

07 거룩한 도시의 환상 | 이영길 소장

기획특집

08 코로나이후 교회의 활로 모색 | 최원영 목사

기획연재

10 6·25전쟁 폐허 속 희망의 빛 | 김동정 장로

문화 | FOOD MOVIE BOOK

13 예수의 미소 | 이관형 권사

순전히 내 맛으로 평가한 여름시즌 춘천 국수열전

14 영화(오두막) | 김춘배 화백

16 김복동 |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

17 책속의 책 | 정숙현

18 여름음료(건강) | 이시형 원장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후원하기

후원기 참여

신협 131-005-937566 (춘천성시화운동)

춘천성시화운동본부 QR코드 후원참여에 들어가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성시화
인물인터뷰
성시화운동연구소



성시화 도시로의 귀환

대담 조용호 박사(법제처) / 취재 최상도 목사(사암교회, 성시신문 편집장)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해 주시지요.

저는 지난 33년간 법제처에 속하여 법령심사를 하는 법제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는 일을 도와주는 자치법제과장, 시대에 맞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법령정비과장, 법제지식을 전수하는 일을 책임지는 법제교육원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곧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시화의 도시 춘천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었는데 계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춘천은 제게 성장기의 도시입니다. 청소년 시절을 춘천에서 보내고, 대학공부 또한 춘천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인생의 어느 때인가 반드시 춘천이 귀환의 도시가 되리라는 생각이 갈수록 바위처럼 굳어져 갔습니다. 마치 제 삶의 시간표인 양 말입니다.

춘천에서 오라고 환희의 찬가를 부르는 것도 아닌데 왜 가느냐고, 오랜 시간을 함께한 직장 동료들이나 춘천에 살고 있는 고향친구들조차도 가끔 묻곤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숙명과도 같은 자연스러운 인생경로입니다.

특히 민족의 “입체적 구원의 비전”을 심어주신 김준곤 목사님의 유지가 있는 곳, 대학시절 믿음의 동지들과 “기독교학문연구”를 하며, 이를 「춘천성시화」에 도입해보자며 나누었던 고민, 스위스 제네바 Reformation Wall 앞에서 믿음의 동지인 이영길 선교사(현 춘천성시화운동연구소 소장)와 나누는 대화와 기도, 아내를 만난 곳, 법제처에서 대한민국의 법제도를 다루게 하신 하나님의 인생설계, 김준곤 목사님이 창립하신 대학생선교회(CCC)의 「나사렛형제들」 전국회장으로 섬기게 된 것, 이런 제 삶의 궤적이 자연스럽게 춘천으로 귀환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세종시를 떠나 춘천으로 이사 오며, “세종시를 떠나며”라는 제목으로 소감을 정리하려는데 몇 날을 생각해도 떠오르는 상(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춘천으로 이사 가며”라는 제목으로 바꾸었더니 5분 만에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신앙 여정, 직장에서 주님과 동행하신 일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1980년 가을, 광주항쟁으로 인한 휴교령으로 단했다 다시 열린 대학 문을 들어서는데 내 인생을 지금 단단히 정리하지 않으면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마침 그때 만난 친구가 고교, 대학 동창인 이영길 선교사입니다. 친구를 따라 CCC 캠퍼스 채플에 간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춘천으로 간다.

왜 가느냐는 물음에 애써 답할 필요 없다.

소양강과 봉의산 삼악산

중앙로 소양로 공지천

명동 약사리 고개 오선동

골목마다 길목마다 거닐며 켜켜이 쌓인 추억이
법대생이 가야 할 곳이 있다며 CCC 간사님의 인도를
따라갔던 춘천지역 기관장 기도 모임

그 모임의 구석진 자리에 앉아 기도했던 기억이
광화문 15층 정부청사와 세종시 7-1 정부청사에서
법리와 합리, 관행과 혁신의 문제 풀기에 골몰하고
독일 벨기에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대한민국과 통일, 보편과 특별을 고민했던 세월이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이곳에서 살아갈 삶이
답해 주리라.

그래도 왜 가느냐구요?

저에게 왜라는 말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1988년 여름, 법제처에 속하여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날에
발령장을 받고 광화문 종합청사
옆의 공원 벤치에 앉아 기도했
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
다.' 라고 말합니다.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법령안과 중앙부처의 법령을 심사
하고, 법령해석 및 법령정비를 주
도적으로 총괄·조정하는 부처
입니다. 그러다 보니 토론과 검증

에 철저한 기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지혜를 구하는 과
정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일을 할 때나
힘든 법안을 다룰 때는 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 33년간 법제관,
자치법제과장, 법령정비과장, 법제교육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일과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
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일법제를 연구하는
COP 회장을 10년 이상 맡아 북한법과 통일문제
에 관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
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법제업
무가 신앙생활의 일부였다는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법제처에서 공직생활을 하며 고민했던 일
들을 퇴직 이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른 점
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주어진 과제에 전념하였
다면 이제는 나 스스로 과제를 찾아서 연구하고,
성경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국회에서는 매일 30건이 넘는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고, 한 해 2천 건이 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
하여 공포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많은 자치법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으로서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이 제 인생 후반의 계
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초에 「도시변혁연구
소」를 설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구소 설립에 앞서 "국가/지방자치단체/주민
관계로 풀어보는 지방자치법 해설"을 주제로 책
을 집필 중입니다.



거룩한 도시의 환상

이영길 소장(성시화운동연구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당도하였음에도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장막에 거하였다. (히11:9) "그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다. (히11:16). 예루살렘은 제사장 국가 이스라엘의 지리적 핵심이었다.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성소가 있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러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히10:1). 참 형상은 하늘도시(히11:16).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계21:2)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는 도시는 땅의 도시가 아닌 하늘의 도시이다. 땅에 임하는 하늘의 도시, 세속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전혀 다른 하늘의 속성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도시를 말한다. 거룩한 도시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한다면, 성시화운동은 이슬람교도들이 그들의 거룩한 도시 메카를 순례하듯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의 여정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거룩한 도시가 이 땅 위의 특정한 공간을 의미한다면, 성시화운동은 성시특별지구를 세우는 도시건설 프로젝트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성경의 거룩한 도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도, 이 땅 위의 지리적 특별지구도 아닌, 이 땅 위에 임하는 하늘의 속성 도시이다. 겨자씨처럼 작게,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진주처럼 소중한게, 향기처럼 은근하게, 빛처럼 능력 있게, 소금처럼 침투력 있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도시, 하늘의 속성으로 땅의 속성을 밀어내는 면역력 있는 영성도시를 의미한다.

성시화운동은 특정한 공간 위에 구별된 도시를 세우는 것이 아닌, 시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운동이다. 도시의 전 영역에 스며들며, 모든 진영을 새롭게 하는 영향력이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당도했으면서도, 그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며" 바라보았던 도시는 하늘에 근원을 두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거룩한 도시였다. 거룩한 도시는 땅에서는 그 원천을 결코 찾을 수 없는 하늘의 도시, 하늘로부터 임하는 도시,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의 도시를 의미한다.

마음의 도시...



코로나 이후 교회의 활로 모색

최원영 목사

(본푸른교회, 본헤럴드대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박사)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달하면 떠오르는 것이 미래에 대한 기쁨보다는 어둠을 더 많이 생각나게 한다. 출생자는 급격히 줄고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그 결과 사회적 침체는 당연한 결과로 다가온다. 2060년 한국의 인구는 현재의 절반인 2,5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심각한 뇌관이다. 특히 2020년 한국의 인구는 51,829,023명으로 2019년보다 20,838명이 감소했으며, 인구 감소는 저출산과 노인사망자 증가 현상 때문이다. 한국은 2020년 275,815명이 출생해 전년 대비 10.7%가 감소했으며, 반면에 307,764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수치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편으로 2041년이 되면 셋 중 한 명이 노인으로 구성된 나라가 된다. 저출산과 노인사망자 증가로 인한 인구 감소는 교회 성장 둔화로도 이어진다. 교회는 고령층으로 전략하면서 동시에 누적된 노인성도 사망자가 늘어난다. 외부로부터 새 가족이 유입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과거에는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인 관계망의 중심에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정보를 핸드폰으로 연결하고, 가상세계에서의 다양한 관계망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살아가면서도 전혀 심심하거나 외롭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교회의 장래는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회와 교회 간의 온도 차이가 크게 난다. 교회가 가진 생각의 온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고, 우리 사회는 다양한 공동체들이 개발되면서 틈새를 메꾸어 가고 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교회 중심의 틀 안에 갇혀 있다. 세상에 익숙한 분들이 교회에 비집고 들어올 틈이 너무 비좁게 느껴진다. 교회가 대안을 만들어서 지역 공동체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지 않으면 미래는 꿈꿀 수가 없다.

우리모두잘되어야
 ☺Don't Worry Be Happy☺



대안 1. 공교회 회복: 선교협동조합

교회 회복을 위한 대안을 고려해본다면, 첫째로 공교회로서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공교회"란 "한 몸"이라는 것이다. '혼자'라는 개념을 버리고 '함께'라는 공동체로 문제를 바라보면 답은 있다. 선교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고리가 필요하다. 지금은 융합의 시대, 공유의 시대로, '함께'라는 공동체적 개념이 우리 사회에 익숙한 언어와 논리와 가치가 되었다. 협력의 정신은 성령의 원리이다. 선교협동조합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전도자는 말하기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붕괴되어 가는 지역사회와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답이다. 여기서부터 연결고리를 찾아간다면 해답이 나올 것이다.

대안 2. 교회의 존재 목적 회복: 관계의 전도망 구축

두 번째 대안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교회 관계망을 뛰어넘어 지역사회에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선교를 통한 영혼 구원은 교회의 방향이다. 전도는 관계망이다. 관계의 선로를 따라 복음은 흘러간다. 교회 전도지를 나누어 준다고 해서 누가 감동하고 교회로 올 것인가? 너도나도 공감할 수 있는 단어와 문화적 코드를 발견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한국사회의 화두가 되는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기업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도 선교 전도 차원에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고령화 사회, 노인 빈곤층 증대,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한 고립자 급증, 우울증 환자, 대면 기피증, 불안과 공포에서 사는 분, 암 환자, 장애인, 황혼이혼급증, 노인과 청소년 자살 급증, 경제적 파산 등 고통 속에 갇혀 있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앞에 놓인 현실이다. 일자리 창출은 이런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 나이가 들어가면 폭넓은 사회적인 관계망이 점점 끊어지고, 결국 지역사회 중심으로 움직인다. 지역에서 조합회원으로 활동하며 일자리 및 봉사들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복음적 생활형 공동체였다.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는 어찌면 초대교회의 삶의 자리와 비슷한 형편이 되어가고 있다. 각 교회는 삶의 자리를 분석하고 연구하며 기도해야 한다. 남이 하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한다. 작은 틈새를 찾아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변하지 않는 복음이라는 원석을 자신의 교회에 맞게 만들어가는 것은 그 교회 구성원들이 해야 할 몫이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연구하고 1%의 가능성을 놓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1%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움직임이 결국에는 역사의 흐름을 바꿔게 한다. 1%의 복음적 대안을 가지고 꿋꿋하고 나갈 때 우리가 사도바울이 되고, 모세가 되고, 다윗이 되고, 느헤미야가 되고, 에스더가 되는 것이다. 우리 공동체는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서 작은 열매만 하나하나 까먹다가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어머니의 자궁부터 천국까지 성도들의 일생을 보살피 주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 70이면 마감하던 시대에서 최소한 100년 이상은 더 살 것이라는 현실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미리 한계를 정하고 포기하지 말라. 생각이, 비전이, 복음이 늙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출처: [최원영목사칼럼] 코로나 이후 교회의 활로 모.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 >>>

6·25전쟁 폐허 속 희망의 빛

김동정 장로(신성교회, 카톨릭관동대학 교수)



▲춘천우두감리교회 봉헌기념 모습

1955.5.20 | 창립 1931.4 | 조선총독부관보에는 1921년(대정10) 3월12일로 되어있음

우두감리교회는 6.25전쟁 때 예배당 전소, 수복 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1952년 3월부터. 처음에는 우두동 267번지 김동근씨 개인주택(약 6개월), 이후 이운석 목사 댁 4칸 마루에서 예배를 드림. 1955년 춘천지방 감리사인 박내철 목사의 주선으로 총리원에서 125만원 건축비 보조 받고 이원석 장로 160평 기증, 우두동 주둔 미 공병대의 도움(목재, 시멘트 전부 공급)으로 예배당을 지어 1955년 5월 20일 류형기 감독 모시고 봉헌식 거행.



▲춘천중앙성결교회 하기아동성경학교 기념(1952.8.3)

춘천중앙성결교회(1934.7.3 창립, 김의용 전도사)는 1950년 6.25전쟁으로 성도들은 피난을 떠났고 교회는 소실. 1952년 5월 수복 후 홍순각, 최정화, 신덕기 등이 김규호 목사를 모시고 교회를 재건, 폐허 속에서도 요선동 임시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열어 목마른 어린 영혼들에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임.

▶춘천가산감리교회 (1953.6.10, 창립, 1954.5 건축)

1954년 5월 미육군 댄 소위(미육군 제124사단 2공병단 근무)의 도움으로 지내리135번지 (구, 예배터)에 교회 건축. 아래 사진에는 당시 준공 후 성도들과 공병대원으로 추정되는 장병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영

화

책

문화에
빠지다 夏

Food.. Movie.. Book..

예수의 미소

이관형 (춘천한길교회 권사)

① 물냉면 | 평양냉면(춘천 사우동)

평양냉면의 육수 맛은 어찌 보면 멍멍할지는 모르지만 나름, 양지와 설깃 그리고 잡빠로 정성스레 곤 함경도식으로, 비빔냉면처럼 강한 존재감은 없지만 뽀얀 육수 안에 자리 잡은 메밀면 위에 고명으로 얹힌 얇은 무와 설깃살의 자태는 가히 예술이다. 아울러 이 집 메뉴에는 자른 뒤 육수에 푹 담가서 면에 돌돌 말아 먹는데, 느끼할 것 같지만 전혀 느끼하지 않고 정말 맛있다. 는 빈대떡을 주문해서 한 입에 먹기 좋게 가위로 적당 것 자른 뒤 육수에 푹 담가서 면에 돌돌 말아 먹는데, 느끼할 것 같지만 전혀 느끼하지 않고 정말 맛있다.

Tip : 한두 명이 갔을 경우 빈대떡은 반 개만 주문해도 충분하다.



② 모리소바 | 왕만두(춘천 퇴계동 CGV내)

고등학교 재학시절 시청 앞 왕만두집 앞을 지나갈 때면 김이 모락모락 하는 만두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바지 주머니 속의 돈을 만지작거리다 돈이 모자라면 꿩 대신 닭이라 중앙시장에 가서 당면만 잔뜩 든 만두를 사 먹었다. 그것이 한이 되었는지 지금은 원 없이 사 먹고 있다. 이후 일본에 가서 우연히 먹어 본 모리소바에 매력을 느껴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지만 별맛이 없던 차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곳 왕만두의 모리소바가 춘천에서 제일 맛있는 곳임을 알고 요즘도 자주 들락날락하며 먹고 있다. 아울러 모리소바에 바삭하니 육즙이 가득한 튀김만두를 곁들여 먹으면 정말 금상첨화다. 강추한다.

Tip : 본점 사농동 벨몽도 근처에 있는데 그곳은 야채비빔만두가 맛있다.



③ 도토리 콩국수 | 도토리네 집(구. 공지천 엔젤보트장)

대학 재학 시절 요선동 가구점 골목에 지금은 없어진 무교식당이라는 작은 식당이 있었다. 그곳에선 맛있게 튀긴 치킨을 팔기도 했는데 여름철 김치 갈절이와 함께 나오는 별미인 콩국수가 너무나 맛있었다. 그 이후 여러 콩국수를 먹으러 돌아다녔지만, 흡사 미세 땅콩 잼을 넣은 듯 맛은 있지만 본연의 깊은 맛은 없었다.

그러던 중 도토리네 집이란 음식점에서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한 콩국수를 찾았다. 그리고 춘천 원조라고 하는 이른 손바닥 크기의 해물파전을 담은 촉촉한 동그랑땡을 같이 먹으면 그야말로 예술이다.

Tip : 방부제가 일절 없는 도토리 가루를 정성스럽게 손 반죽해서 만든 임자탕은 어르신들께겐 보약 한 첩이다.





오두막 The Shack

김춘배 화백(성시신문 편집위원)



샘 워싱턴이라는 배우가 있다. 화제의 SF 영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의 주연을 비롯하여 웬만한 블록버스터 영화의 주인공으로 발탁되는 유명한 배우이다. 그런 그가 신령하고 거룩한 기독교 영화에도 출연했다. 찰턴 헤스톤, 윌 브리너 등 액션 영화 스타들이 등장하는 성경 영화의 감동은 그 임팩트가 상당하다. 거기에 옥타비오 스펜서라는 유명한 흑인 여배우의 등장으로 극적 몰입도가 더 가미되는 흥미로운 작품이다. 나사(NASA)의 인종차별을 다룬 화제의 <히든 피겨스>의 주인공으로 나온 연기파 배우인데 수많은 영화에서 감초적인 역으로 출연해 왔다.

이러한 명배우들이 출연한 <오두막>이라는 영화는, 윌리엄 폴 영의 동명소설을 스투어트 하젤딘이 스크린으로 옮겼으며, 예수님의 설교처럼 그 비유가 자못 심오하고 신비스럽기도 하는 상당히 미묘한 분위기의 성경 영화이다. 아니 엄밀히 말해 복음적이고 성경적이라 하기에는 어딘가 애매하고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에 많은 도움과 시사를 주는 영화임이 틀림없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에서 엄마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을 가진 채 1남 2녀의 가정을 이룬 맥이 어느 날 가족들과 캠핑을 나섰다가 아동 납치범에게 사랑스런 막내딸을 잃게 된다. 너무나 큰 슬픔과 딸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실의에 빠져 지낸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파파'로부터 (딸을 잃은 장소인) 오두막으로 초대한다는 편지가 오고 의문과 갈등 속에 그 오두막으로 가게 되는데, 이후 그곳에서 세 명을 만난 맥은 신비하고 의미심장한 경험들을 하면서 가슴 안의 분노, 죄책감이 어디서 기인하는지, 왜 그렇게 자신을 확대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딸의 살해범을 용서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 서서히 배우는 과정에서 신앙과 사랑의 본질에 접근해 들어가게 된다. 그 세 명은 삼위일체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물 위를 걷는 체험에서 예수님의 신비로움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상당히 인위적이고 판타지적인 요소로 자못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가르침에 저촉될 수도 있지만, 사랑과 치유와 용서의 진리를 자연스럽게 정감있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영화의 좋은 미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독생자를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보다 설득력 있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눈여겨 볼만하다. 삶의 고난 가운데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매 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환상적이고 따뜻한 이미지와 터치로 만든 영화라 하겠다.

그러나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도 경계해야 하는데, 바울이 영지주의를 조심 하라고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는 이 영화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대면해야 한다. 인간적인 치유와 용서의 개념으로 말씀과 능력의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되며, 도리어 이 영화를 통해 말씀 구별의 각별한 주의를 상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의 '지혜'가 말한다음과 같은 소중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커다란 선물과 같을 수 있으리라.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일 뿐 인데 인간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있기에 분노와 고통이 생기고 심지어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잘못을 따지자면 결국 아담이 저지른 원죄로 거슬러올라갈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을 맡길 때에야 비로소 삶의 혼란과 고통,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통만 보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유머① - 믿음 좋은 며느리

믿음 좋은 며느리가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께 늘 핍박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영혼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하고 특별히 찬송가 395장을 부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식구들이 시어머니께 합심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나오세요, 며느님께서 할머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세요."
"흥! 그것 다 왕내송 떠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려 갈 때 몰래 따라가 봤는데요, 이시어미를 이겨버리자는 노래만 부릅디다."
깜짝 놀란 집사님 한 분이 어쭈어보았습니다.
"무슨 노래였는데요?"
"거~ 뭐라드라..."
"너 시어미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너 시어미 이겨 새 힘을 얻고~"

유머② - 예수가 죽었다단다

경상도 할머니 셋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할매1 : 어이, 예수가 죽었다단다.
할매2 : 와 죽었다 카드노?
할매1 : 못에 찢려 죽었다 안 카나.
할매2 : 어이구, 머리 풀어헤치고 다닐 때 알아봤다.
이때 아무 말도 않던 또 다른 할머니가 물었다.
어이, 예수가 누꼬?
할매1 : 몰라, 우리 며늘아가 "아부지, 아부지" 캐샀는 거 보니 사돈어른인갑지 뭐!
할매3 : 그래, 문상은 갔더나?
할매1 : 아니, 안 갔다.
할매3 : 왜 안 갔노?
할매1 : 갈라 캐터만 사흘 만에 살아났단 안 카나!



김복동

Salvation 2014-6
290.9×193.7cm | oil on canvas & wood



옴기는 고난에 대한 문제를 놓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옴과 고난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는 친구들의 논쟁을 담고 있다. 그 시대에 최고의 의인이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는 물음에 하나님은 그의 절대적 주권과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이후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표징으로 보여주신다.

오른쪽 인물은 눈과 다리의 장애를 갖고도 크게 화업을 이뤄낸 존경하는 선배 화가의 삶을 투영시켜 보았다. 그는 군 복무 중 폭발물 사고로 한쪽 눈과 한쪽 다리를 잃었으며 그 후유증으로 매일같이 약을 한 움큼씩 먹어야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 그런 힘든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열정을 내어 작업하는 모습은 주변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모든 고난은 궁극적으로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귀결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주님!'이며, 고통과 고난은 결국 그 한 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흰점과 붉은 점은 불명확한 가설에 불과한 진화론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 주권자와 전능자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방점의 역할을 감당한다.



책속의 책

정숙현 전도사 (안디옥교회)

아직도 우리의 육체는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자유롭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더 신성하고 생생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소개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로완 윌리엄스 지음 / 김기철 옮김 / 복있는 사람

이름만으로도 묵직하게 와 닿는 영성가로 바쁜 일상의 삶을 사느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빈곤을 누리는 이들에게 잘 절제된 감정과 언어로 균형 있게 현실을 통찰하는 저자다. 육체의 건강을 위하듯 영혼의 건강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두 권이다.



▶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세례, 성경, 성찬례, 기도라는 교회의 이 네 가지 핵심요소를 다루면서, 이 네 요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을 등지지 않고도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설명한다.

▶ 제자가 된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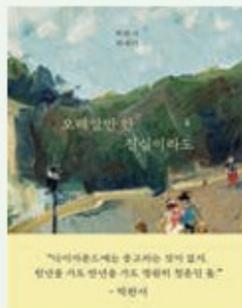
제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중에서 특별히 믿음, 소망, 사랑, 용서, 거룩함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이 예수님의 제자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데에 대해 도전을 하게 한다.

『모래알만 한 진실이라도』 박완서 지음 / 세계사

한국인이 좋아하는 박완서 작가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0주년, 그를 추모하기 위하여 그의 수필 중 대표작 35편을 다시 묶어 출간한 산문집이다.

마음이 낸 길, 꿈을 꿀 희망, 무심한 듯 명랑한 속삭임, 사랑의 행로, 환하고도 슬픈 얼굴, 이왕이면 해피엔드라는 소재목이 말하듯이 그 안의 내용은 우리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읽는 내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글이다.

인생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글감이 되었으니 천생 글쟁이인 작가의 글을 통하여 우리 내면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툭툭 건드리며 '나도 한번 써볼까?' 하는 마음도 들게 한다.





더위를 이겨내는 여름철 보약 생맥산(生脈散)

이시형 원장 (이시형한의원)

기상청의 여름예보를 보니 올여름은 평균 기온보다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다고 합니다. 올여름도 찌는 듯한 더위를 잘 이겨내야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 '더위는 기를 잘 상하게 한다.'라고 하였듯이, 여름철에는 땀으로 인한 체액 손실이 크고 기의 손상이 쉬우므로 이를 보충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 보양식을 많이 찾는 이유도 손상된 기를 보충해주기 위함입니다.

여름철 한방에서 많이 처방하는 약 중에 일반인들도 흔히 알고 있는 생맥산(生脈散)은 인삼, 오미자, 맥문동으로 구성된 처방으로 글자 그대로 맥(脈)을 생(生)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내용물이 가득 담긴 냄비에 비유하여 보면 여름철 더위로 인해 땀으로 체액이 손실된 상황은 냄비 속 내용물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족한 내용물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맥문동입니다. 또한, 냄비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삼이며 냄비의 내용물이 수증기로 날아가 손실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미자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 약재가 어우러져 체액과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를 갈무리하여 늘어지고 허약해진 기운을 북돋아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생맥산의 작용입니다. 그 밖에도 생맥산은 항산화, 혈당 강하, 심혈관계 질환 예방, 운동 후 피로회복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프리카 친구들~!
단기일자리 있으면 알려주세요.

HP:010-7487-6701 (국제교회 박남신 선교사)

목회자 고등학생 자녀 **수학교실**

효자교회 수학교사 30년 조기퇴임한 권사님께서
재능기부로 자원봉사 합니다.

문의 HP:010-3045-8865 (효자교회 / 김중호 목사)



since 1989.5.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암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사암교회
담임목사 **최상도**

협동목사 이영길 남궁태석 전도사 김진솔 협동통일선교사 허문영
시무장로 김주식 현재용 오성남 교육간사 백종진
원로장로 송용남 최명용 송용광 찬양대 홍희정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3-28 Tel. 033) 261-7725 Mobile. 010-8297-2644 [http:// www.saam21.org](http://www.saam21.org)

since 1989.5.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암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제2기 제자대학 졸업

축

제2기 제자대학 졸업

기간 : 2020. 5.17~2021.5.16. 1년 과정

최우등 졸업 : 한나집사
우등 졸업 : 신덕진안수집사 이상봉집사
우수 졸업 : 강진영 김윤진 김진아 배은지
백은주 송재섭 안진영 이재용
이지현 임인자 최상지 (무순)

사암교회
담임목사 **최상도**

강의내용 : 그리스도인의 확신/제자도/하나님의 음성듣기/하나님나라/기초양육법
유태인의 성경암송/그리스도인의 생활원리/구약시형/신약시형/기초전도법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3-28 Tel. 033) 261-7725 Mobile. 010-8297-2644 [http:// www.saam21.org](http://www.saam21.org)

2021 교회표어

우리는 소양교회입니다



담임목사 김 선 일

부 목 사

이명식 이철주 김태환 이형열

전담전도사

함민영

교육전도사

정이람

협동목사

임명진 정병기 조무진

원로장로

이종섭 문영식 박태순 김용배 박상문

김용대 조장국 심윤보 김남철 허남현

영예장로

백운선 이성용 김기수 장병윤 정호강

홍광유 최일정 김진서 성김용 이천호

시무장로

김용철 조대일 조경화 김용일 김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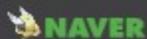
강홍구 류승근 박문상 정연대 송원진

홍광표 최형규 신덕근 장영주 김두수

윤두보 김도영 최진호

기독교 소양교회
대한성결교회

24269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43번길 19
TEL 033-253-2004-5 FAX 033-244-3005
Homepage www.soyang.or.kr



기사제보 및 광고문의 033.256.1260 / 010.9698.2993 | 홈페이지 holy1972.com

검색